

* 신간 안내

제나에서 일어나로 : 다석 류영모 어록

* 류영모 지음 / 박영호 엮음 / 올리브나무

* 출간일 2019년 10월 15일 / 328쪽 / 값 16,000원

● 책 소개

20세기를 관통하며 살다 간 다석 류영모의 가슴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 사상의 옥동자가
잉태하고 자라나 꽃을 피웠다.

기독교, 불교, 유교, 불교, 노장 사상 등 동서고금의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꿰어 독창적인 종교 철학의 체계를 세운 종
교일원론자이자 사상가, 철학자, 교육자. 20세기 한국이 낳
은 정신적인 큰 스승이자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자'로,
땅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몸과 맘의 거짓된 제나(ego)를 벗
어나 우주의 주재자이자 우주정신이신 한얼님(니르바나님)
이 주시는 일어나로 솟나(부활)는 길을 가리켜 보였다.
본서는 YMCA 연경반(研經班)에서 강의한 내용의 속기록

중에서 가려뽑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명실공히 다석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만하다.

● 지은이 : 다석 류영모 (1890~1981)

젊어서 기독교에 입문한 이후 도그마에 물들지 않고 진리 탐구에 매진, 불교와 도교와 유교를 하나로 꿰는 “동서통합의 영성철학자”로 거듭났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대로 “20세기 최대의 사건이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다석의 가슴속에서는 동서양의 종교가 만나서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사상의 옥동자가 잉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 이래 줄곧, 몸과 맘의 ‘제나(ego)’에서 우주의 주재자이자 우주정신 자체인 ‘얼나’로 솟나(부활)는 길을 가리켜 보였다.

김교신, 함석헌, 이현필, 류달영, 김흥호 같은 ‘겨레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독창적 종교사상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옆은이 박영호 (1934~)

함석헌의 글에 감명을 받고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어 오던 중, 함석헌의 스승인 류영모의 강의를 듣고 마음이 끌려서 그 길로 제자가 되었다. 1965년 스스로 독립하라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5년간 혼자 공부한 끝에 첫 책 『새 시대의 신앙』을

출간하였으며, 팔순이 되신 다석 선생으로부터 “졸업증서·마침보람”이라고 쓰인 봉함엽서를 받았다. 다석 사상을 통해 일어나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그의 저서로는 『다석 전기』, 『노자와 다석』, 『다석 중용 강의』, 『다석 씨알 강의』,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잃어버린 예수: 다석 사상으로 읽는 요한복음』, 『메타노에오, 신화를 벗은 예수: 다석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등이 있다.

● 책 속으로

천 가지 만 가지의 말을 만들어 보아도 결국은 하나(절대)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 하나를 깨달아야 한다. 깨달으면 하나이다. 한얼님의 나가 ‘한나’, ‘하나’이다.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얼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한얼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 나(自我)가 죽어 한얼님의 얼로 눈이 뚫리고, 코가 뚫리고, 입이 뚫리고, 마음이 뚫리고, 알음알이(知)가 뚫려야 참으로 한얼님의 아들인 얼나가 엉큼엉큼 성큼성큼 자라게 된다.

우리 사람의 값어치가 무언가? 몇천 몇만 년이 걸려도 한얼

님의 열로 한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얼나라에서 떨어진 한얼님의 아들이란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한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다. ...우주이시며 우주의 정신인 한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임을 깨닫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다. 한얼님을 그리며 생각하면 정신이 위로 오르게 된다. 한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요 명상이다. 기도는 내 생각이 한얼님께로 피어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한얼님의 뜻을 좇아 한얼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몸살은 덧없어도 얼살은 영원하다.

우리 맘속에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타고 있다. 한얼님의 말숨(말씀)이 타고 있다. 그것이 거룩한 생각이다. 사람은 한얼님의 말숨이 불타는 성화로(聖火爐)이다. 이것이 현존재이다.

사람이 우주의 비릇인 맨침(太初)을 잘 모른다. 우리 사람은 온통(전체)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라 온통(전체)으로 온전(완전)한 한얼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온통이요 온전인 한얼님을 그리워한다. 태초요 영원인 한얼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

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한얼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참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여기 왜 있나? 이 까닭을 알자면 한얼님 아버지에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우리의 머리 위에 한얼님을 이고서 거룩한 생각을 피워야지 다른 생각을 할 것 없다. 한얼님을 뚜렷이 한얼님 아들로 뚜렷할 일이다. 우리 사람의 값어치가 무언가? 몇천 몇만 년이 걸려도 한얼님의 얼로 한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얼나라에서 떨어진 한얼님의 아들이란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한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다. 한얼님을 섬기는 데는 물질이 안 든다. 한얼님이 아버지임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다. 안 잊어버린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으로 곧 정신의 일이다. 우주이시며 우주의 정신인 한얼님을 내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임을 깨닫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다. 한얼님을 그리며 생각하면 정신이 위로 오르게 된다. 한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요 명상이다. 기도는 내 생각이 한얼님께로 피어 올라가는 것이다. 한얼님의 뜻을 좇아 한얼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몸삶은 덧없어도 얼삶은 영원하다.